

길상천 입상

오랜 세월 속에서 이 상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찬란함은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이 상이 만들어진 시대를 생각하면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 상이 만들어진 때는 헤이안 시대(794~1185년)로, 그 당시에는 생생한 모습 위에 선명한 색채가 칠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이안 시대 불상의 전형적인 경향으로서 중성적인 인상을 주는데 길상천은 여신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상천은 옛날부터 다산(多産)과 미의 여신으로서 사람들의 신앙을 얻어왔는데, 그와 동시에 행운과 부 등 더 일반적인 소원을 들어준다는 존재로서도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길상천이 왼손에 들고 있는 여의보주는 길상천이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능력은 길상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것이지만, 불교는 현세에서의 바람을 초월하는 데 무게를 두기 때문에 현세의 부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불교 세계에서 길상천의 위치는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능력은 길상천의 중심적인 속성으로서 여의보주는 어느 시대의 길상천 상이든 표준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상이 머리에 쓰고 있는, 탐처럼도 보이는 원뿔형 관은 드문 것입니다. 이는 헤이안 시대의 닌나지 절 및 그 주변에 있어서 불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를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